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진주 산청지사,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 사업설명회

윤 박종봉기자 | 승인 2026.01.28 14:02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 개선에 대한 농업인들 관심 높아



한국농어촌공사 경남 진주산청지사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 계획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농지은행사업의 주요 방향과 함께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 전반과 함께, 최근 개선·개정된 규정을 사업별로 안내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농지 이용과 임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개정 규정 가운데 농업인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내용은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 개선이다. 기존에는 임대인에게 2.5%에서 5%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나, 2026년 개정안부터는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일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농업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제도 개선으로 평가됐다.

장명석 지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농촌 현장의 문제를 공유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26년 농지은행사업이 더 많은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저작권자© 전국매일신문-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봉기자